전주지역 최초 중증장애인 시설 開院

사회복지법인 송광 산하 '금선백련마을' 8월 21일 고불법회

전주 평화동 위치 181㎡ 규모
1 · 2급 지적장애인 30명 생활
대표 덕산 스님 2억5천 출연


사회복지법인 송광은 8월 21일 전주 금선암서 '금선백련마을(대표 덕산)' 개원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전주지역서는 처음으로 불교계 중증장애인 시설이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송광(이사장 도영, 송광사 회주)은 8월 21일 전주 금선암서 '금선백련마을(대표 덕산)' 개원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도영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금선암 불자들은 덕산 스님을 중심으로 기도와 수행, 신행활동에 남다른 원력을 보여줬다"고 치하하고 "물질적인 불사도 중요하지만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고통을 소멸하고 즐겁고 평등한 마음으로 생활인들을 보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개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자들의 후원이 큰 힘이 됐다"며 "물질적으로 크게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생활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준아 후원회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원금 약정식이 열렸다. 금선암 신도회(회장 김영돈)는 생활필수품을 전달했으며, 김정희 씨는 개인 사업체 매출액 10%를 후원키로 약정했다. 또 금룡암주지 무관스님과 신도들은 자비의 쌀 800kg을 후원했다.

법회를 마친 대중들은 금선백련마을로 이동해 시설을 둘러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생활인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주시 평화동에 문을 연 금선백련마을은 사회복지법인 송광의 산하시설로 1 · 2급 지적장애인 30명이 생활하고 있다. 181㎡의 대지위에 건평 656㎡규모로 의무실과 물리치료실, 전염병 격리보호실, 집단 활동실 등을 갖추고 직원 23명이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대표 덕산 스님이 사재 2억5000여만 원을 출연하고 도영 스님, 대전죽림정사 광진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이날 개원 고불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이번에 개원한 금선백련마을은 2015년 불미스런 사건으로 전라북도로부터 시설폐쇄명령을 받아 오갈 곳 없는 장애인 30명을 전격수용,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이날 법회에는 이사장 도영 스님, 인도네시아 능인선원장 성찬 스님, 대각사 주지 백운 스님, 수덕사 요양원장 태민 스님, 용인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 여래향사 주지 지현 스님, 완산경찰서 경찰불자회, 금선백련마을 생활인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처님 자비정신으로 장애인 돌볼 터"

Interview

금선백련마을 대표 덕산스님



"처음부터 풍족한 환경서 시작하지 못해 생활인들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앞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들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월 21일 개원한 금선백련마을 대표 덕산 스님(금선암 주지)은 "정신적 ·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금선(金仙; 부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덕산 스님은 불자들에게 그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근본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은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스님은 금선암 중창주 금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금화장학회를 설립하고, 도영 스님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송광'의 이사로 활동하며 복지사업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그동안 부처님 가피로 편히 살아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교세가 약한 지역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복지사업이 불교가 나아가야 할 할 방향이라는 생각과 그동안 공덕을 사회에 회향해야겠단 발원으로 복지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을 벌이냐는 말도 있었지만, 소외된 누군가에게 도움과 희망을 주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는 스님의 말에서 그동안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금선백련마을 생활인들은 기존 시설서 있던 불미스런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시설폐쇄란 전라북도 조치에 따라 오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덕산 스님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며 "도덕 · 윤리적으로 생활인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동제 지사장

"사찰은 늘 즐거운 공간이에요"

광주 정안사, 8월 19~20일 '여름불교학교'


광주 정안사는 8월 19~20일 '여름 불교학교'를 열었다.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사찰체험을 선사하기 위한 수련회가 열렸다.

광주 정안사(주지 동초)는 8월 19~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여름 불교학교'를 열었다. 35명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첫 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친구와 함께 나무 만들기 △태극권 △장기자랑 △애니메이션 감상 △예불 △부처님 그리기(진흙으로 부처님 만들기, 탑 쌓기) △행복한 부처님 노래 △물총놀이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동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인연을 심어주는 것은 향후 불교의 미래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며 "향후 지속적 활동을 통해 어린이 법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 중 오형종(전북 정읍 · 초5) 어린이는 "사찰에 오면 늘 즐겁고 재밌다. 다음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정안사는 20여 년 전부터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어린이 법회와 수련회 등에 참석했던 어른들로 구성해 지역 어린이 포교활동의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초 스님은 "향후 가족법회를 통해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사찰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어른들은 경전을 배우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놀 수 있도록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행선 지사장

광주교도소 불교분화 신임회장 진표 스님

8월 20일 취임법회 봉행
"불자 교정위원 늘릴 것"



"재소자를 비롯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자비행을 베풀 것입니다."

8월 20일 광주 수자타에서는 광주교도소 불교분과 회장 진표 스님〈사진〉취임법회가 열렸다. 법회는 취임식, 자비의 쌀 전달식, 축하공연, 저녁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엔 암도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원일 스님(정광학원 이사장),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청호 스님(대한호국불교승병단 총무원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교화교정위원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진표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회장 직책에 막중함을 통감한다"며 "외롭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교도소 불교분과는 19명의 교정위원들과 20여 명의 후원자가 사비를 들여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400여 명의 불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불교교리공부, 신앙상담, 고민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매주 정기법회, 성년식, 수계식, 봉축행사, 문화공연, 간식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매결연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재소자들을 위한 영치금 전달, 명절지원, 생수지원 등을 진행하고, 매주 150여 명이 참여하는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진표 스님은 향후 계획에 대해 "향후 재가불자 교정위원을 더 많이 늘려 재소자들에게 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혜향 스님(향림사 주지)은 이임사에서 "마음과 달리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많이 부흥을 못했다. 새로운 신임회장과 임원진들의 노력을 통해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빛이 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암도 스님은 축사를 통해 "회장으로서 보다 정진하는 자세로 광주교도소 불교분과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감화를 주고 웃음을 가득하게 하는 불사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광주전남연합회에 '자비의 쌀' 전달식과 가수 민성아 · 김유성 · 김상범 · 홍다영 · 정아 · 박순범(오페라) · 금혜민(오페라) 등 교도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가수들의 축하무대가 이어져 큰 흥을 돋웠다.

한편 진표 스님은 광주불교대학장과 대한호국불교승병단 총재를 역임하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 교정위원으로 10여 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양행선 지사장

정읍 내장사, 재가불자 수계법회 봉행

8월 20일 100여명 불자 수계 받아


정읍 내장사는 8월 20일 대웅보전서 삼귀의계와 오계,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가 지역 불자들을 대상으로 삼귀의계와 오계,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8월 20일 내장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이날 수계법회는 1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참 불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전계사로 등단한 도완 스님으로부터 수계한 불자들은 청정한 계율을 바탕으로 신심 깊은 불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도완 스님은 신기철(법명 도정) 씨 등 수계 불자들에게 계첩을 수여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성실한 삶 · 청정한 행 · 진실한 말 · 맑은 정신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설했다.

이어 스님은 불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축하했다.

한편 내장사는 매주 토요일 '도완 스님과 함께 하는 차와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지사장

실상예불선으로...

불자 여러분 이땅의 아픔과 갈등의 치유를 발원하옵니다.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部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생야일편부운기) (사야일편부운멸) (부운자체본무실) (생사거래역여연)

삶이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오. 죽음이란 한조각 구름이 없어짐이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것 죽고 살고 오고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출처: 서산대사 해탈의 시





부자되는 글 :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 독송하는 자는 가정이 평안하고 자손이 번창하여 부자되는 영험이 있다.

영가(신병,재난)에 시달리며 고생하시는 분
사람이면서 사람 행동을 못하시는 분은
실상예불선을 받들어 수지 독송 하시며
부정을 긍정으로 불안한 마음을...

1 관찰한다
2 영적인 본질을 보는 것
3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신다.
4 계속되면 스님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 총무 010-4566-4504

(社)護國佛教曹溪宗 총무원장 유심성도 jogyejong.kr

•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 부산역 앞 관음정사
전화 051)468-5657 |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 시신 및 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 본 디스크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51)442-5658]

감 독 : 관음 박몬비 | 조감독 : 무념 도갑원, 청곡 강모종 | 디자인,사진촬영 : 보교기획
제 작 : (주)예인미디어 | 녹 음 : 그냥해 STUDIO
기 획 : 유심스님 | 요 령 : 봉덕스님 | 목 탁 : 혜명스님 | 염불선,징 : 유심스님

판매처 : 부산불교전시관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52번지
☎ 051)644-8092